

나만의 책 쓰기로 창의 인재 '쑥쑥'

전주기전중, 다양한 영역 융합하는 교과통합 교육 실시

전주 기전중학교(교장 김동수) 학생들은 4년째 '나만의 책 쓰기'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전중학교는 도교육청 자율주제 선택과제 '나만의 책 쓰기' 활동을 통해 각자 관심 있는 분야를 탐구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으며 다양한 영역을 융합하는 교과통합 교육을 실시해 왔다.

이에 학생들은 책쓰기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를 소비하는 존재에서 인문학과 과학, IT산업을 아우르는 새

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게 된다.

매년 7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10개월에 걸친 탐구와 작업, 첨삭을 거쳐 20여 종류의 책이 출간되고 있다. 올해도 72명이 시작해 24명이 마지막까지 참여해 17권의 책을 만들었다. 참신함과 기발함, 열정과 노력이 담긴 가장 중학생다운 책이다.

'중딩교도소'와 '특별한 선물', '시간이' 등 중학생의 학교생활과 학교폭력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그린 세

권의 책을 발간한 김하연 학생은 "책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글과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통해 창조적 기쁨을 맛보고 자신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영역을 찾은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매년 책쓰기를 지도하는 소년자 수석교사는 "아이들은 생각이 말뚱말뚱해서 어른들보다 훨씬 유연한 생각으로 독창적인 산출물을 만들어 낸다"면서 "독서와 쓰기, 말하기 등이 어우러진 책쓰기 교육이 참학력 수업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수 교장은 "무한한 재능과 에너지를 가진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주면 상상력을 발휘한다"며 "책쓰기 과정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본다"고 전했다.

한편 소년자 수석교사는 전라북도 교사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나만의 책쓰기' 수업공개 나눔을 진행했으며 자유학년제, 동아리, 교과융합, 인성교육, 창의적 수업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 '나만의 책쓰기'가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장은성기자



김승환 교육감이 14일 오전 대학수학능력시험장을 찾아 수험생을 응원했다.

“수험생 여러분, 자신을 믿고 힘내요”

김승환 교육감, 전주여고서 응원

김승환 교육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4일 오전 시험장을 찾아 수험생을 응원했다.

김 교육감은 수험생들의 입실이 거닐 바란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수험생들의 입실이 거의 완료된 8시에 감독관실로 이동해 감독관들을 격려한 뒤, “수험생들이 불편함 없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며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시 최대한 학생 편에서 대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학교장에게도 “수험생들이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난방이나 환기 등 시험실 환경에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호원대, 전북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협약체결... 대응시스템 강화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학생상담센터는 14일 전라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센터장 임재성)와 재난경험자의 심리회복지원활동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해연보(2018) 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역은 경북과 강원도에 이어 세 번째로 재난피해액이 큰 지역으로 나타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망 확보와 대응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



호원대학교 학생상담센터가 14일 전라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재난경험자의 심리회복지원활동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런 사회적 상황에 따라 이번 협약은 각종 재난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재난 경험자 및 간접피해자를 위해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정상적인 일상 복귀 및 2차 후유증 예방을 위해 전문가를 파견하고 심리상담과 의료지원 등 전문 치료기관으로 연계해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강희성 총장은 “양 기관이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난경험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 및 심리지원프로그램 등을 통해 조속한 일상복귀 및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호원대학교 학생상담센터(센터장 이미영)는 재학생들의 재난을 비롯한 위기사건 경험 시 재난 복원력을 높이고 심리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연계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재학생을 대상

으로 대한적십자사 심리사회복지지양교육을 실시했고, 전문상담원을 대상으로 감사과정 교육을 이수해 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아울러,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통해 점차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심리회복지원활동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군산대 전북씨그랜트센터 품소만 갯벌 활용방안 모색

군산대학교 전북씨그랜트센터(김형섭 센터장) 주최로 최근 품소만 갯벌생태공원에서 '전해 품소만 갯벌의 오늘과 내일'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 심포지엄은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으로 급격한 환경변화를 겪고 있는 품소만 갯벌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으며, 시도군 관계자 및 어업인 약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심포지엄은 △품소만 갯벌 수산양식 현황과 문제점(전북씨그랜트 김형섭 센터장) △축척식 양식장을 활용한 갯벌 패류양식 활성화 방안(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센터 송재희 연구사) △바지락 인공종자생산의 여제와 오늘(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 문재학 과장) △서해안 서식 염생식물의 생리활성 화합물 탐색 및 이용가능성(군산대학교 노경래 교수) 등의 주제 발표로 이어졌고, 주제 발표 후에는 품소만 갯벌 활용방안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다.

전북도 연안은 1990년대부터 시작된 새만금 사업으로 2/3이상의 갯벌이 매립되어 급격한 해양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또한 수산생태계의 약화로 어업인의 삶의 질이 하락하는 등 다양한 현안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이날 김형섭 센터장은 “전북도 해양수산 현안문제 발굴 및 실효성 있는 연구를 통해 전라북도 해양수산 경쟁력 강화 및 소득기반 안정화를 목표로 전북씨그랜트센터가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전북도 내 전북씨그랜트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군산대학교 전북씨그랜트센터는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기술지역특성화사업으로 2017년 4월 선정되어 해양수산 관련 지역현안문제 연구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호원대, 학생생활관 방과 후 프로그램 성황리 마치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2019학년도 2학기 학생생활관 Hyper RC 프로그램을 성황리 마쳤다고 전했다.

Hyper RC 프로그램(이하 RC)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연계한 학습프로그램이다.

방과 후 학생들은 자기개발을 목적으로 건강영역, 취미영역, 인성영역, 학습영역 등 총 4가지 영역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

건강영역인 '즐기면서 배우는 배드

민턴 교실'은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모두가 함께 참여해 총 6주간 운영됐고, 취미영역 '건강한 간식 만들기 교실'은 간편한 재료를 활용해 건강한 간식을 만들어 보는 시간으로 총 5주간 진행됐다.

특히, 인성영역과 학습영역으로 진행된 전문가 초청 '남녀대화법'과 '4차 산업 특강'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호원대 학생생활관 왕중산 관장(물리치료학과 교수)은 “학생생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화업으로 쌓인 스트레스 해소와 더불어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방과 후 장·단기 비교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실시해 학생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대, '직무 멘토링 데이' 운영... 청년 1000여명 몰려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13일~14일 이틀 간 2019 JJ 직무 멘토링 Day'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JJ 직무 멘토링 Day'는 40여 개의 다양한 직무에서 재직하고 있는 선배를 초청, '선배가 알려주는 직무·취업 꿀팁'이라는 콘셉트로 각 멘토별 멘티 8~10명의 소그룹 토론회를 운영했다.

이 행사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사전에 전공별 주요 진출 희망 분야를 조사해 문화관광, 전략기획, 이공계 연구개발, 금융사부, 도시재생 등의 직무에서 근무 중인 40여 명의 졸업생

을 멘토로 초청했다. 참가한 학생들은 멘토와 교류하며 생생한 직무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희망 분야 취업에 대한 팁을 얻어갔다.

전주대 대학일자리센터장 박균철 교수는 “JJ 직무 멘토링 Day를 통해 도내 청년들이 희망하는 직무 역량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채용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발전해나가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멘토를 초청해 직무 교육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